

# 2026년 6월 2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: AI 랠리와 매크로 리스크의 줄다리기

KOSPI 사상 최고치 경신(8,788)과 엔비디아 신형 칩 모멘텀이 증시를 견인하는 가운데, 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 급등(\$92 돌파)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점화하고 있습니다.

KOSPI ATH

**8,788.38**



(+3.68% 마감) /  
9,000선까지 단 211pt.

WTI Crude Spike

**\$92.59**



(+5% 급등) / 이란 협상  
중단 및 지정학적 리스크.

BTC Surg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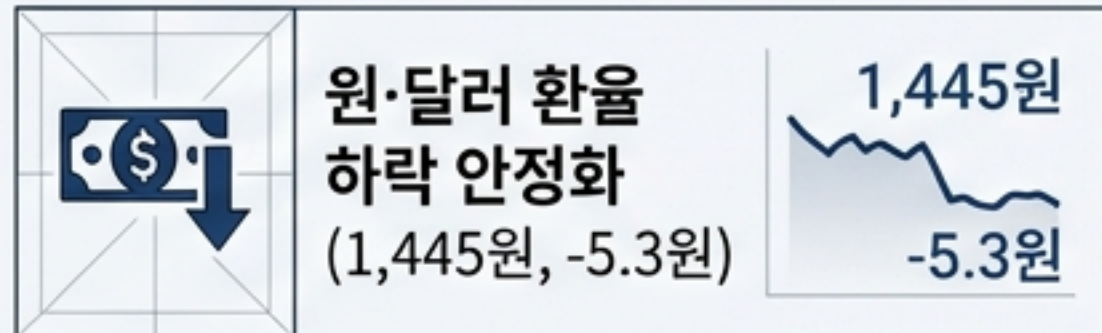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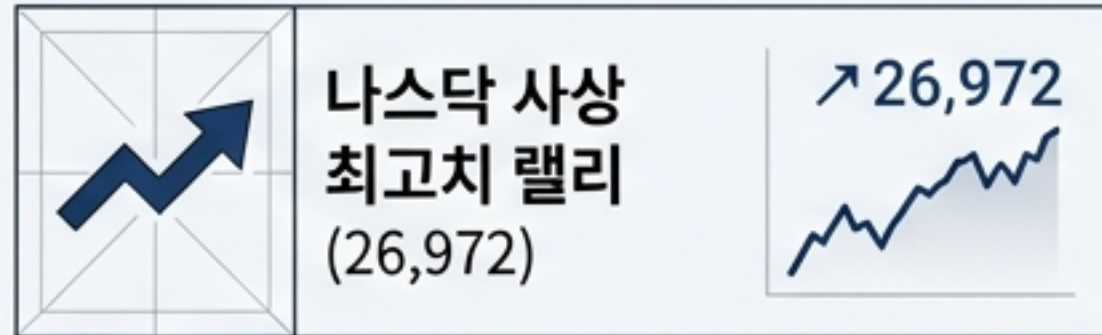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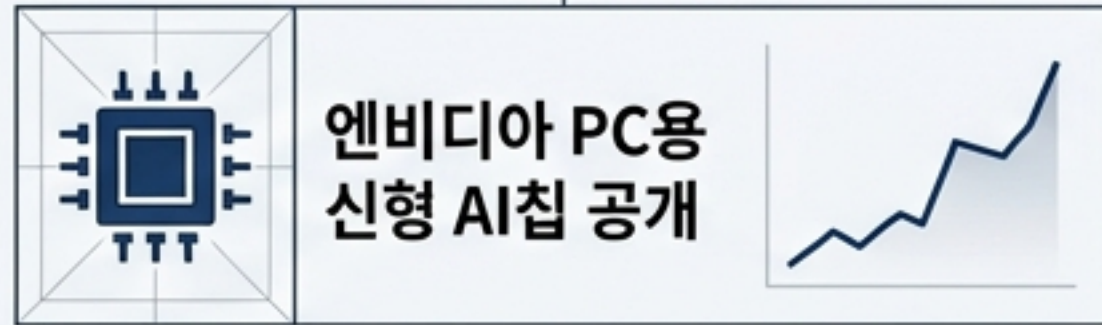
**+\$1,240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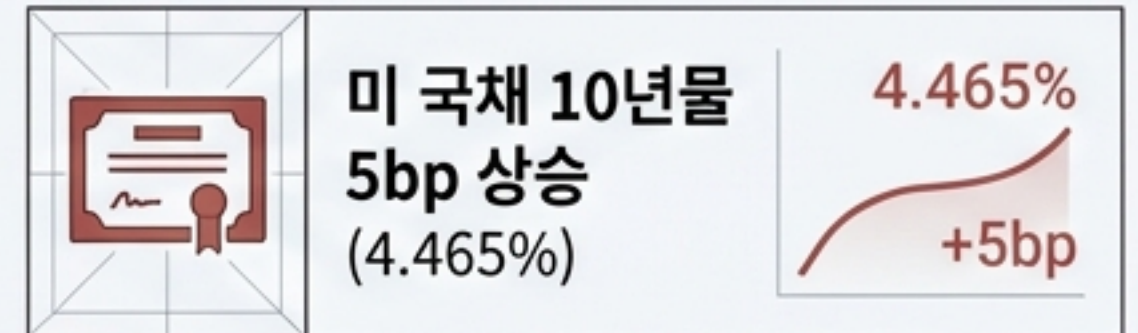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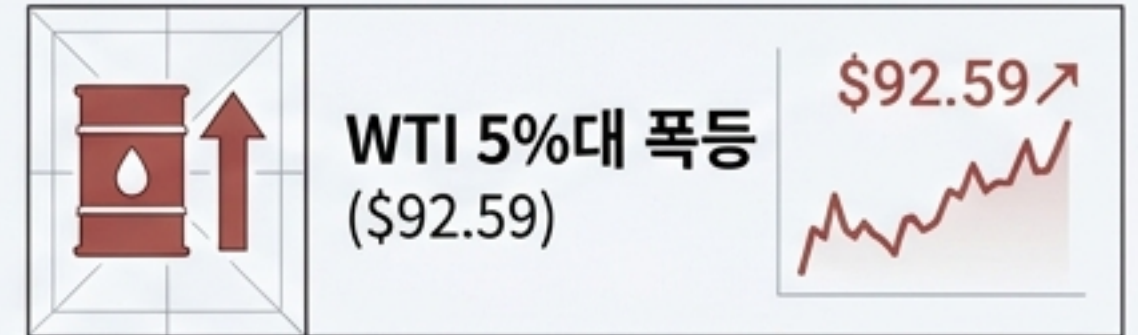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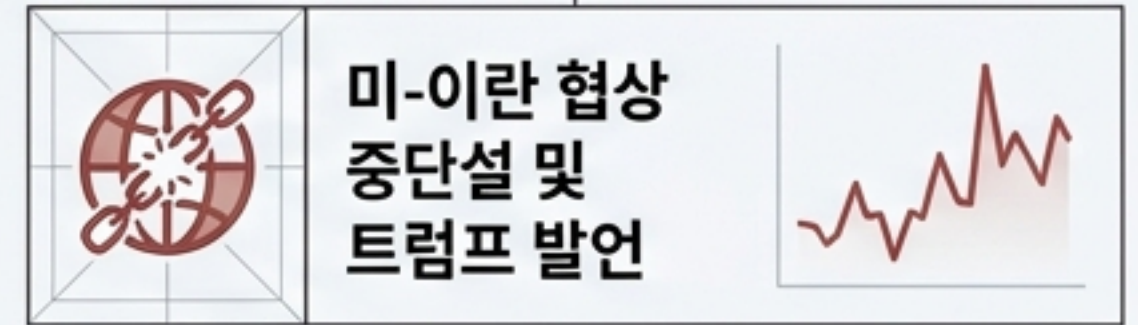
급등 / ETF 순유입 지속에  
따른 위험자산 선호.

# The Macro Tug-of-War: 위험과 보상의 팽팽한 균형

## AI 낙관론 & 주주환원



## 지정학적 리스크 & 매파적 연준



이 두 거대한 힘의 충돌이  
금주 금요일  
[미국 고용보고서(NFP)]  
발표를 기점으로  
승패가 갈릴 예정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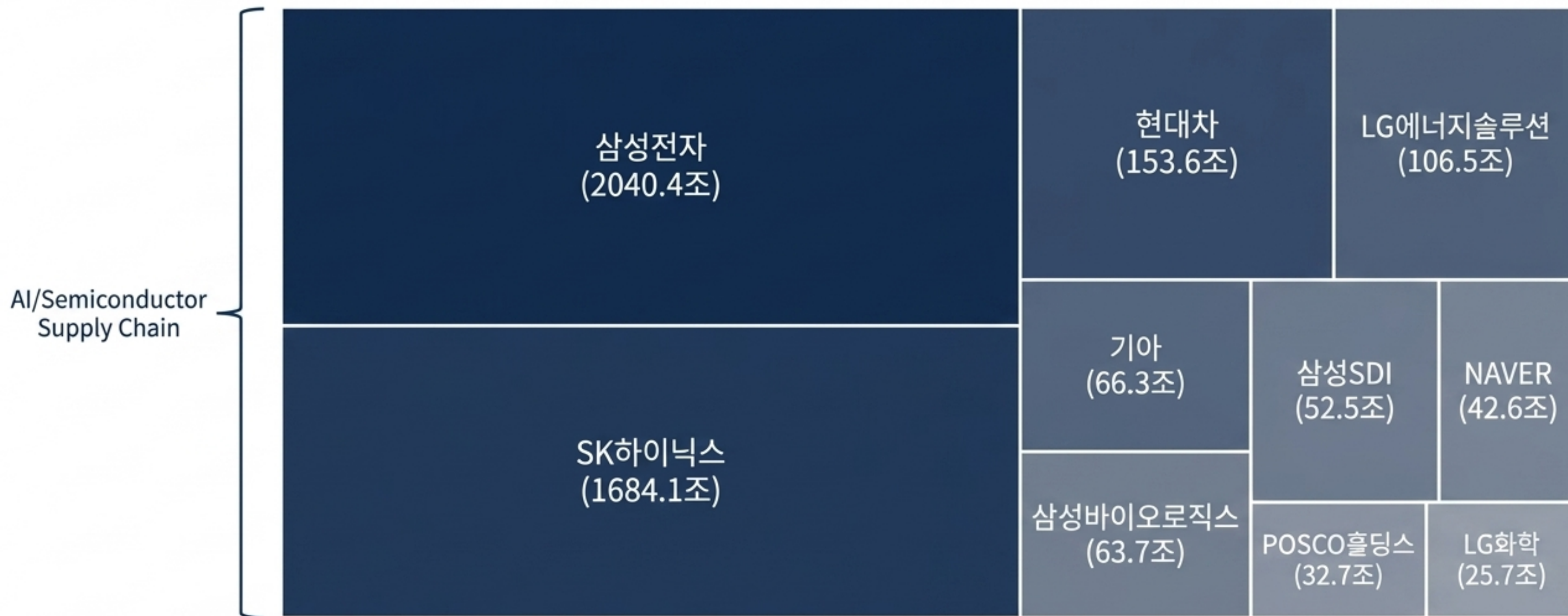
# 국내 증시 디커플링: 두 지수의 엇갈린 운명

## KOSPI

## KOSDAQ

지표	8,788.38 (사상 최고치)	1,050.03 (-2.30% 급락)
핵심 동인	젠슨 황 효과 및 칩/AI 서플라이 체인 연쇄 상승	제약지수 1만 2천선 반납 및 9개 종목 두 자릿수 급락
수급 주체	외국인 매도세에도 대형 기술주 중심의 강력한 매수세 방어	외국인 순매수에도 불구하고, 기관/개인 패닉 셀링 겹치며 하락 주도
전망	'9천피' 시대 진입 가시화 (211pt 남음)	바이오/제약 섹터 투심 악화로 하방 압력 지속

# KOSPI의 기동: 대형 기술주가 견인하는 사상 최고치



외국인의 전반적 매도 흐름 속에서도, 시가총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8,700선 위로 강력하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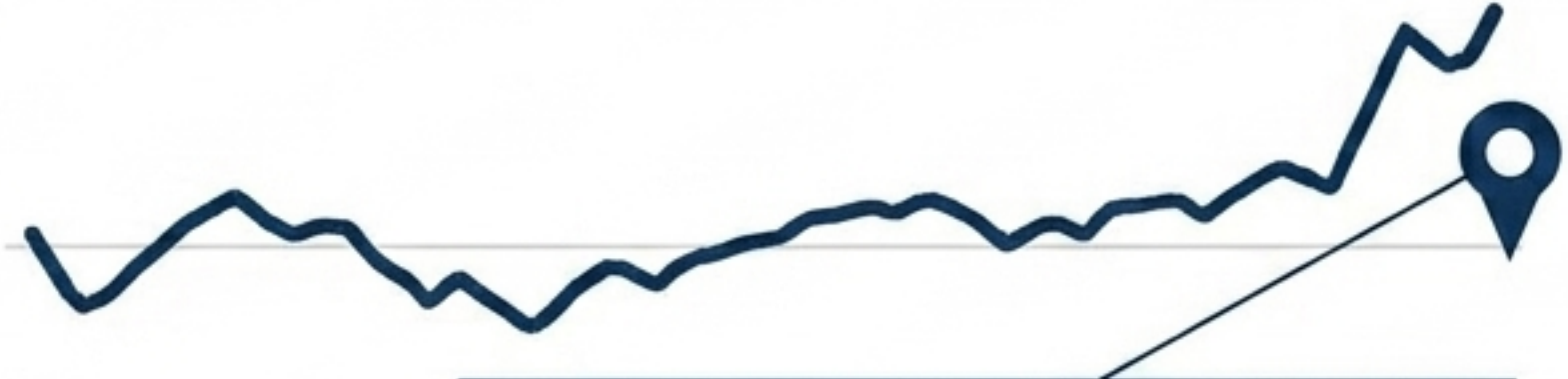
# 국내 섹터 히트맵: 철저한 소외와 쏠림 현상

## 1주 국내 섹터 성적

서비스업 (-16.60%)	보험 (-13.66%)	건설업 (-10.77%)	금융업 (-10.47%)
		금융업 (-10.47%)	제조업 (-10.22%)
의료정밀 (-13.03%)	철강금속 (-11.68%)	의약품 (-11.20%)	유통업 (+3.0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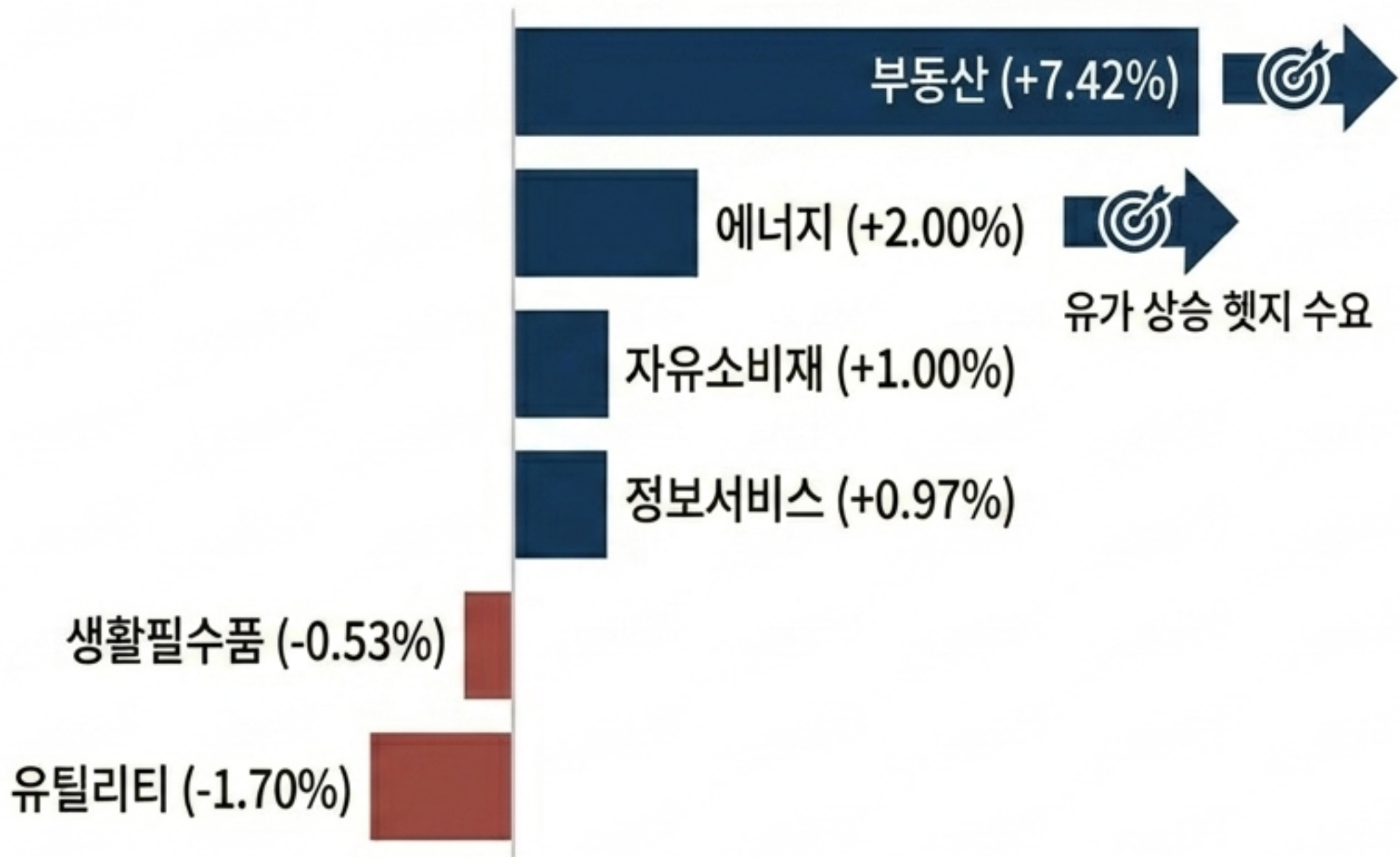
코스피 지수의 화려한 최고치 이면에는, 의료/제약 및 서비스업의 주간 두 자릿수 폭락이라는 극심한 섹터 차별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

# 미국 증시: 전쟁통에도 무너지지 않는 AI 방어력

S&P 500	7,580.06 (횡보)	
DOW JONES	51,032.46 (횡보)	
NASDAQ	26,972.62 (장중 +0.42%~0.71% 강세 반영 후 마감) 강세 반영 후 마감	 <p data-bbox="2135 1378 3162 1776"><b>엔비디아 PC용 AI칩 공개</b> 이런 리스크와 유가 급등이라는 거대한 매크로 충격파를 엔비디아의 신제품 발표가 완충하며 기술주 중심의 상승 랠리를 방어했습니다.</p>

# 미국 섹터 자금 흐름과 '서학개미'의 선택

## 1-Day Performance US Secto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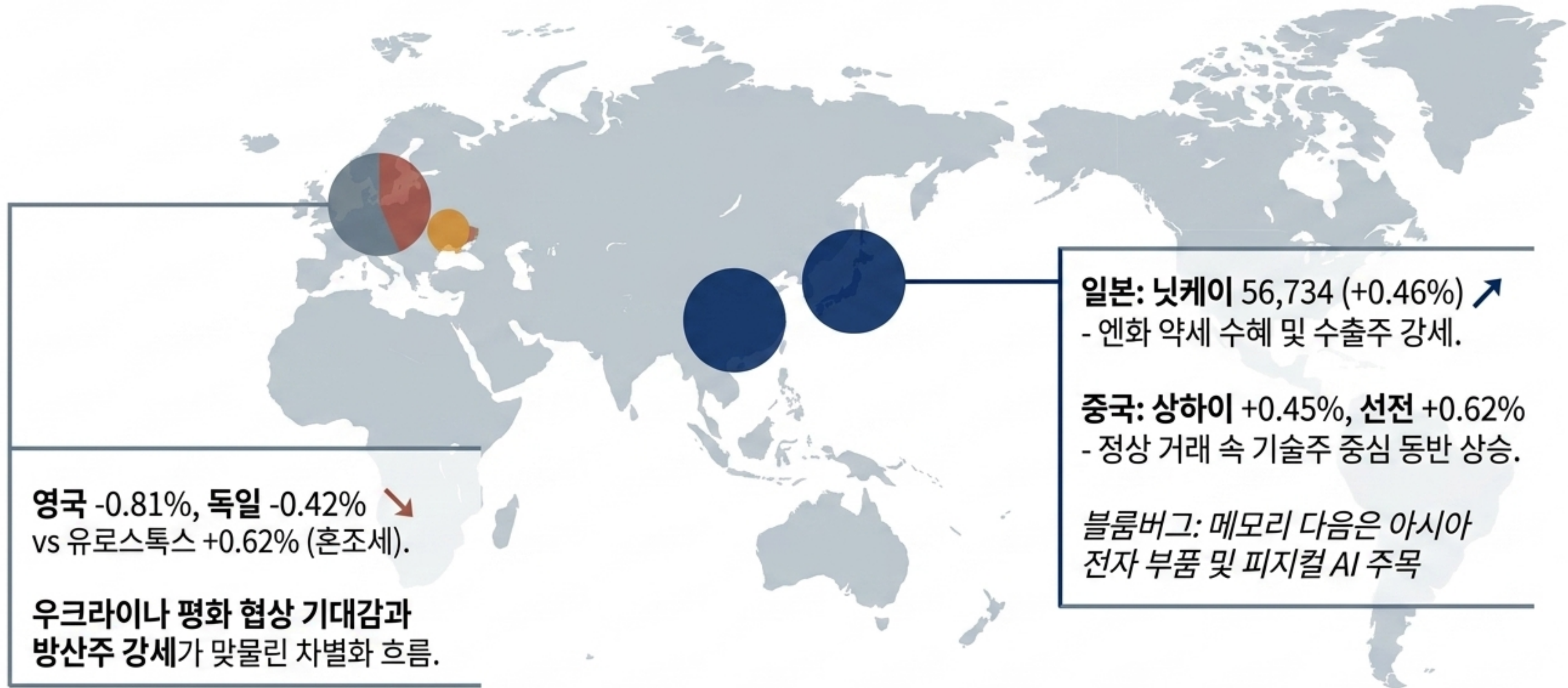


## 서학개미 자금 유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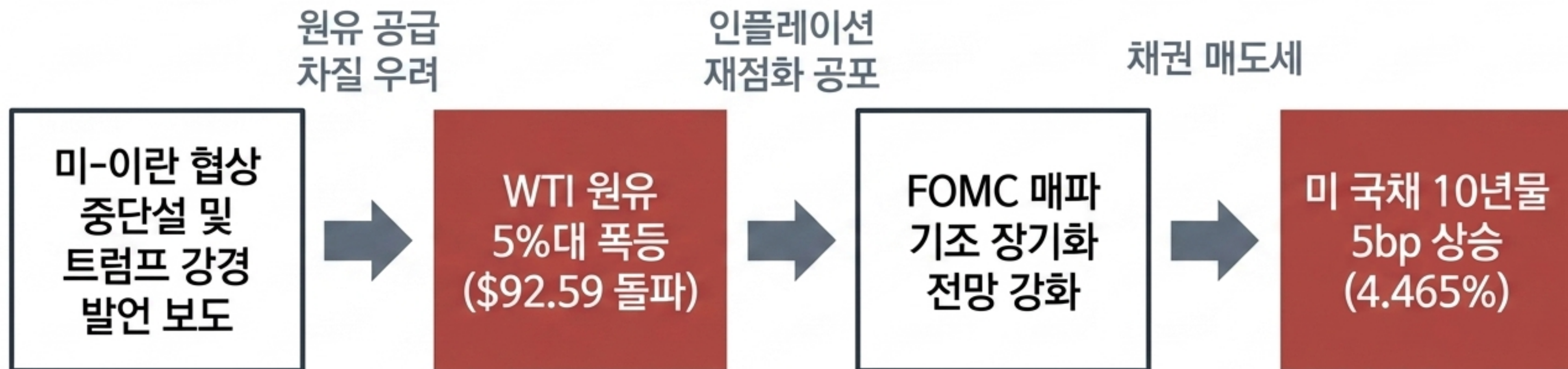
5월 서학개미(한국 개인투자자) 자금은 낯선 신규 테마보다는 익숙하고 검증된 대형주 위주의 ETF로 대거 유입되었습니다.

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'아는 맛'에 집중하는 보수적 투심을 반영합니다.

# 글로벌 맵: 아시아를 뒤덮은 피지컬 AI 훈풍



# FICC 메커니즘: 지정학적 리스크의 나비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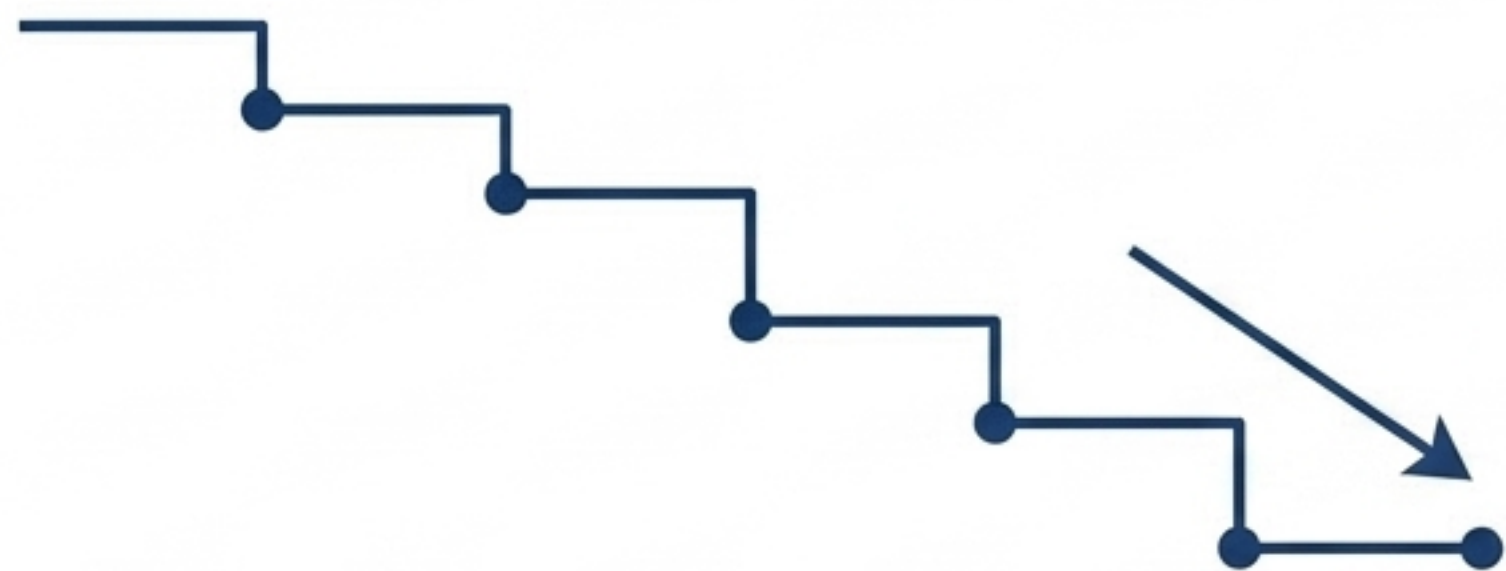


중동발 충격이 단 하루 만에 원유 시장을 거쳐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까지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'Risk-Off' 피드백 루프가 작동했습니다.

# 환율과 암호화폐: 증시 하방을 지지하는 두 가지 시그널

원/달러 환율 (KRW/US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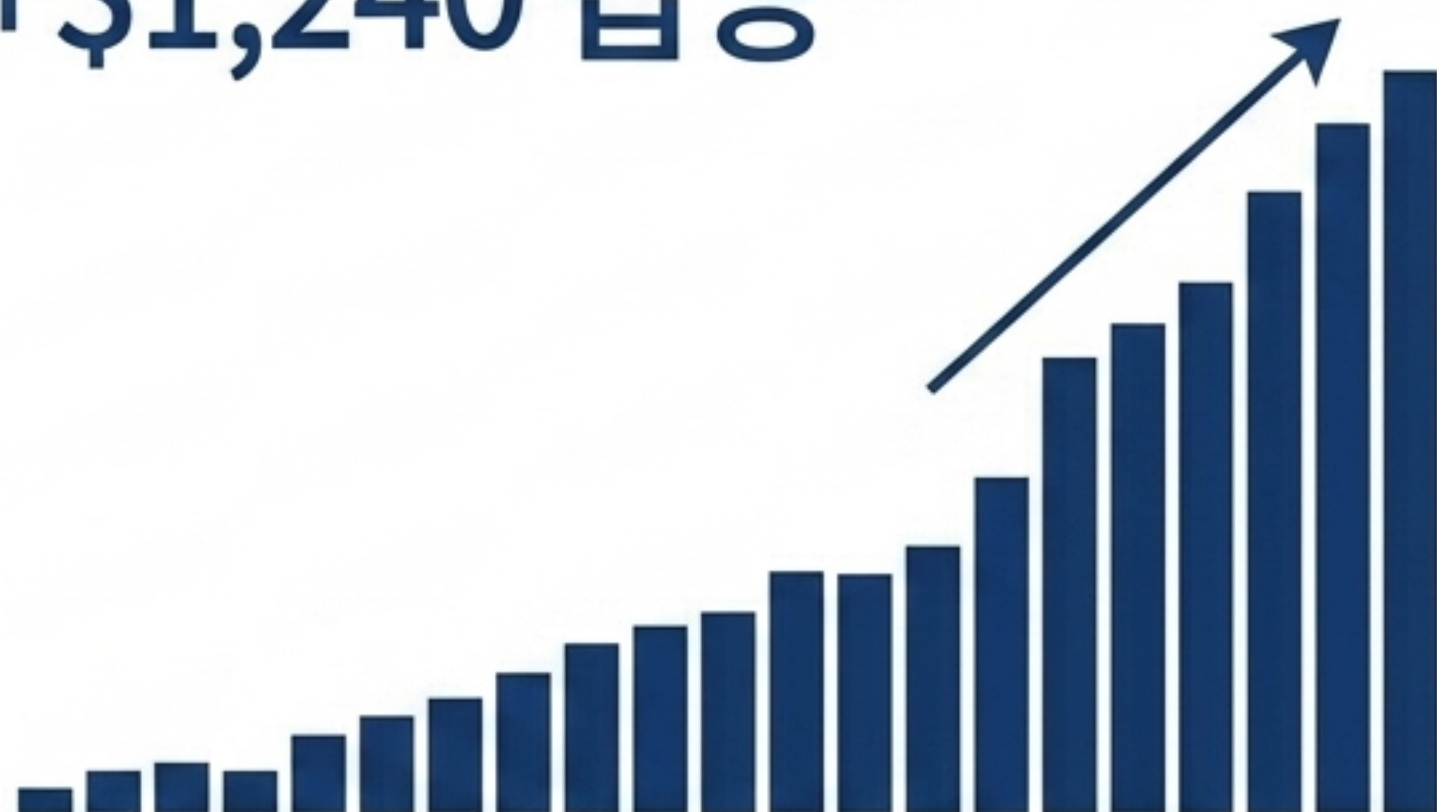
1,445.00원 (▼ 5.30원 하락)



유로 강세로 인한 달러인덱스 하락(97.63)이 원화 강세로 직결. 외국인 수급 개선의 핵심 전제 조건이 마련되며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을 촉면 지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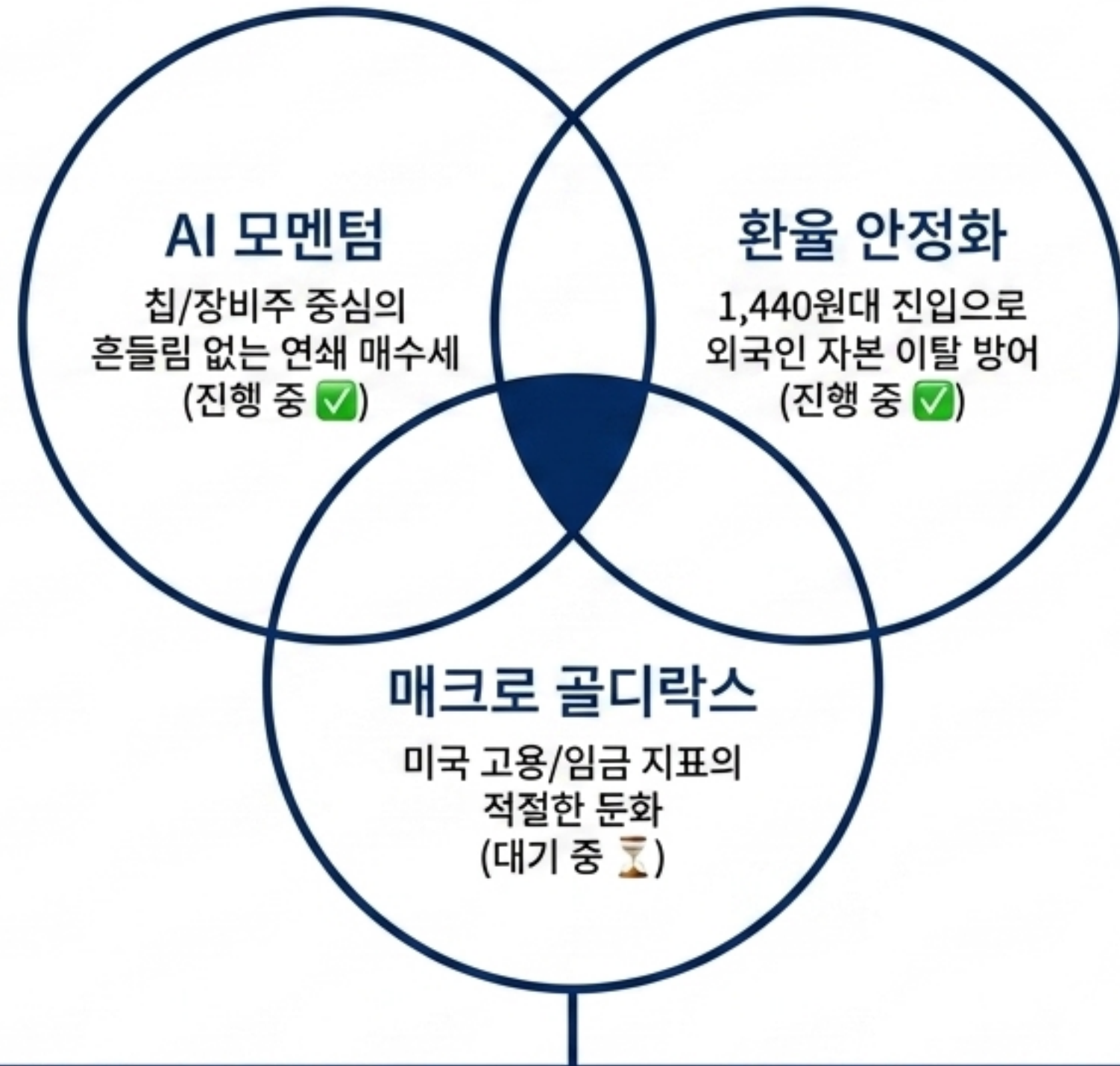
비트코인 (BTC)

+\$1,240 급등



현물 ETF로의 10거래일 연속 막대한 자금 순유입.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동성이 '순수 위험 자산'으로 강하게 끌리고 있음을 증명.

# 핵심 관전 포인트: KOSPI 9,000 돌파를 위한 완성 공식



현재 증시는 AI 낙관론만으로 상단을 뚫고 있습니다. 9,000선 안착의 마지막 퍼즐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입니다. 고용이 적절히 부진하게 나와야 국채 금리 발작을 제어하고 상승 랠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

# 매크로 타임라인 (상반부): NFP를 향한 예열

- 한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(예측 3.0%)
- 미국 4월 JOLTS 구인건수 (예측 6.87M)

노동 시장 수요의 첫 번째 가늠자.

화요일 (오늘)

- 미국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(예측 116K)
- 미국 ISM 비제조업 PMI (예측 53.8)
- 원유재고

서비스업 투심과 민간 고용의 힌트 공개.

수요일

# 매크로 타임라인 (하반부): 금리 방향성을 결정지을 '심판의 날'

금요일

- 5월 비농업고용지수 (NFP) (예측 95K)
- 실업률 (예측 4.3%)
- 평균 시간당 임금 (MoM 예측 0.3%)

이번 주 모든 매크로 데이터의 종착지:  
연준의 향후 스탠스를 결정할 '심판의 날'.

-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(예측 211K)

노동 시장의 지속적인 냉각 신호 확인 필요.

목요일

이번 주 모든 매크로 데이터의 종착지입니다.  
임금 상승률 둔화와 고용 냉각(NFP 100K 하회)이  
확인되어야 연준의 스탠스가 완화되고  
채권 비중 확대 및 증시 추가 랠리가 가능합니다.

# Actionable Insights: 장전 포지셔닝 전략



## BUY

**국내 대형 기술/AI  
서플라이 체인  
단기 매수 유지.**

외국인 수급 변동성에도  
불구하고 글로벌 피지컬 AI  
모멘텀이 하방을 강력하게  
지지하고 있습니다.



## HEDGE

**에너지 섹터 및  
채권 비중 모니터링.**

WTI 유가 급등(\$92+)이  
일시적 노이즈인지  
추세인지 확인하기 전까지,  
포트폴리오 내 에너지  
ETF 헷징 유효.



## MONITOR

**금요일 고용 지표에  
따른 채권 전략  
스위칭 대기.**

미국 고용 데이터 부진  
확인 시, 10년물 국채 금리  
하락에 베팅하는 채권 비중  
확대 전략을 준비하십시오.